

폐타이어 재활용 처리시설 기공식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김형철)는 4월 3일 경기도 시화국가산업공단에서 환경부와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연간 2백만개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시설의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사진 참조).

시화공장은 수거된 폐타이어를 분쇄한 뒤 함유된 철, 섬유질, 수분 등 이물질질을 제거한 후 순도가 99% 이상인 고급 고무분말을 생산하여 아스팔트, 고무보도블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오는 2000년에는 영남과 호남지역에도 각각 시화공장과 유사한 규모의 폐타이어 재활용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공장이 정상가동될 경우 지역별로 발생하는 폐타이어 처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朴錦準/協會 環境對策課長)



〈사진설명〉 폐타이어 재생처리시설 기공식 광경

해외 폐타이어 재활용 사례



〈사진설명〉 미국 Maine주의 North Yarmouth 에서는 도로용 포장재로 폐타이어 고무칩을 사용하고 있다.